



반찬 나누고·일손돕고... 정읍시 봉사·기부 활발

정읍에서 주변 이웃을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시가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 중인 '행복 나눔 공유냉장고'에 물품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박정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남매인경원 대표)은 행복나눔 공유냉장고에 컵라면 50박스를 기부했다. 앞서 전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김 풀자반 등을 기부했으며, 주민자치회 오금녀 위원(정주수산 대표)은 동태 새우살 흑보리쌀 등을 기부하는 등 곳곳에서 나눔에 참여하고 있다. 정읍시 새마을부녀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시의회 고성환 의원 등 10명도 지난 18일 정우면 일원 고추 농가를 방문해 비닐 제거 활동에 나섰다. 이날 참여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 일손을 도울 뿐만 아니라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행정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신태인읍 새마을부녀회 회장 박연희는 지난 18일 회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 옷 30여 포대를 수거해 분류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는 가정마다 입지 않는 헌 옷을 모아 수거해 자원 재활용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진행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식조리사 등 전문인력과정 개강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을 희망하는 미취업 경력 단절 여성의 1차 서류 진행, 2차 면접 진행을 걸쳐 조리분야에 관심이 많은 20명 선발해 지난 19일 한식조리사&팜파티플래너 전문인력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오는 5월 30일까지(총200시간) 동안 공중보건의 위생·안전관리, 팜파티플래너 전문기술을 배우고, 직무소양교육, 취업대비교육, 현장견학 및 현장실습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의식산업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가장 기본이 되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 팜파티플래너 전문인력을 양성해 도시와 농촌 간 교류 활성화를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남원지역의 음식 체험 온라인쇼핑,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다양한 분야로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영농철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

순창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에 앞서 마을마다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는 소형 농업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민들의 영농 작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농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11월까지 접근성이 낮은 오지마을과 수리접이 먼 100개 마을을 직접 방문해, 고장 난 농업기계의 수리는 물론 농민들이 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과 안전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군은 예취기, 인력 분무기, 경운기 등의 간단한 고장은 농업인이 현장에서 직접 정비할 수 있도록 자가 수리 방법을 교육하고 야간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미부착되거나 오래되고 파손된 반사경은 새것으로 부착하여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에 적극 앞장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순회 봉사 이외에도 작년부터 소모성 부품에 대한 수리비 한도를 6만원까지 확대해 수리해 주며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주민 일상 지키고 공동체 치안 기여

순창경찰, 농협은행 순창군지부 등과 '캡-드라마' 업무 협약

순창경찰서(서장 윤상현)는 19일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에서 이병희 순창군지부장 김영 순창군자율방범연합회장, 김중태 장애인연합회장이 참여한 가운데 '캡-드라마'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캡-드라마'는 Cop-Drive Mileage의 앞머리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자율방범대의 범죄예방 순찰 거리를 누적 적립하면 농협이 적립된 거리를 마일리지화(1km당 200원)하여 매년 120만원의 지원금을 장애인 단체 등 취약계층에 기부하는데 동참하는 사업이다. 특히, 순창경찰서에서 기획하고, 지난 15일 설명회를 개최한 '순창형 주민 안전 모델'과 함께 치안협력자인 자율방범대원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민·관·경이 협력하여 순찰에 맞는 안전 모델을 만들어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치안 안정화는 물론 공동체 치안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순창형 주민 안전 모델'은 현재 '순창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자율 방범 활동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또한, 경찰은 순찰 실종자 등 수색 캠페인, 교통 및 인과 관리, 보이스피싱예방활동, 교육 이수 시 적립된 포인트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부 어려운 이웃을 도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병희 NH농협은행 순창군지부장은 "범죄예방 활동을 하는 자율방범대와 함께 기부 동행을 하게 되어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병숙 전북경찰청장, 고창경찰서 치안현장 방문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19일 고창경찰서(서장 한도연)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다양한 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치안현장 간담회는 평온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치안으로 총력하고 도우려던 피의자를 면밀한 CCTV 추적 수사로 신속한 검거에 기여한 형사팀 경위 곽동현, 청렴 선도 그룹 활동 및 의무위반 특별예방 등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범죄예방계 경장 최혜진, 선제적 범죄예방 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한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한 모양지구대 경장 강노라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서 범죄피해자,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고 교통이나 서민 대상 금융범죄, 스토킹 범죄 등 민생을 직접 위협하는 분야 등 현장의 흐름과 상황을 살펴보고 주민들과 현장 경찰의 의견을 경청해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제대로 된 치안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병숙 전북경찰청장은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민들의 눈높이와 관점에서 생각하고, 도민이 힘들고 위험한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북경찰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남원시 도통동 등, 폐의약품 수거함 기부 전달식

남원시 도통동(동장 소선자)은 19일, 동 사무실 앞에서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장(이병진)과 초록나무협동조합장(변창원) 등과 '폐의약품 수거함' 기부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전달식은 2024년 읍면동장 8대 핵심과제 추진사업중 일환으로 도통동 공동 우수사례 사업인 '폐의약품 수거함' 추진을 위한 것으로, 관내 경로당 등 기타 적정한 장소 26개소에 설치 비치했다. 특히 이 사업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가 폐의약품수거함 26개에 대한 재료비(일백만원)를 부담하고, 초록나무협동조합이 수거함을 제작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추진했다.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에는 '떡다남은 물려주세요!' 라는 올바른 분리배출의 번거로움을 해소하는 문구를 넣고 사용자들이도 체감할 수 있는 편안한 의사만과 캐리커를 새겨놓았다. 한편 소선자 동장은 "이번 폐의약품 수거함은 재능기부를 통하여 제작 설치하게 되었는데,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및 수거로 환경오염 예방을 증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통하여 제작 설치하게 되었는데,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및 수거로 환경오염 예방을 증진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립도서관, 문화의 날 맞아 체험·문화 공연

김제시립도서관이 3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책바로 데이, 원데이 컬러와 미술공연'을 선보인다. '문화가 있는 날'은 지역문화 예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도서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사업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김제시립도서관은 오는 27일 수요일에 대출 권수를 1인당 5권에서 10권으로 늘려주는 '책바로 데이'와 가족단위 체험 원데이 컬러를 운영한다. 여기에 덧붙여 특별공연으로 오는 29일 금요일 저녁 7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미술공연을 진행한다. '신기한 미술학교' 공연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어린이들에게 미술 도구를 증명하고 상호 소통과 체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제=곽도태 기자



진안군 마을기술사업단, 재능나눔 봉사활동 시작

진안군마을민들기지원센터 마을기술사업단은 지난 18일 진안군마을민들기지원센터에서 2024년도 간담 집수리를 요청한 마을 이장 및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는 사업 취지를 설명하고, 서비스 품목과 현장점검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 마을기술사업단은 농촌의 주거환경 속에서 나오는 불편을 재능을 가진 주민이 나서 해결하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한 '생생마을 플러스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들은 '수리수리마을수리'라는 이름으로 재능 나눔 봉사를 실시하며 4월부터 마을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공동시설과 주택에 대해 부속품 등 수리활동을 진행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장수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장수군은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 임직원들이 19일 군청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22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장수읍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는 농어업인 주곡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과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에는 임직원 22명 동참해 관내 지역 경제 활기와 기부금의 활성화를 위한 뜻을 모았다. 오재준 지사장은 "본 지사가 장수군에 소재한 만큼 지역과 상생하며 발전하고 싶은 마음에 임직원들과 함께 고향 사랑기부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고향사랑기부금에 동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기탁을 통해 장수군과 유대를 강화하고 함께 협력해 동반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임실소방서, 소방관서장 건설현장 화재안전 현장지도

임실소방서는 19일 불철 대규모 공사현장 화재 안전 강화 및 화재 예방 지도를 위해 국립임실호국원 건설현장에 대해 소방관서장 현장 방문 행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지도·점검은 불철 화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건축 공사장 관계자들에 대해 화재 예방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지도 △공사현장 가연물 보관 등 취약요인 화재 위험요소 확인 △임시소방시설 설치 확인과 유지·관리 등 지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해 안전 정보를 제공·공유하는 상시 소통창구 운영 협의 등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운영

임실군 치매임실센터가 지난 2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주 1회 1시간, 총 8회에 걸쳐 관내 경로당 6개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은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예방운동 및 체조 등을 통한 신체활동과 치매 예방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는 인지산별검사, 노인 우울척도검사 등 사전·사후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선정·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화재 안전 컨설팅 추진

남원소방서는 관내 달궁힐링이영양 등 캠핑장 12개소 대상으로 소방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위한 화재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불철 따뜻한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종식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야영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야외 취사 및 난방 등 화기 취급 빈도가 높아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특히 야영장이 대부분 산간 지역 등에 접해있어 화재시 산불로 번질 우려가 높으나 인근 소방시설이 부족, 초기소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캠핑장 안전수칙을 홍보하고 나섰으며, 주요 안전수칙으로는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누전차단기 설치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 자제 △텐트 내 비상산정등 및 소화기 비치 등이다. 이철성 대응예방과장은 "따뜻한 봄철이 오면 캠핑장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한 캠핑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